

# 세계의 지성이 모이는 문화잔치

## 제48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돌아보고

‘책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지난 10월2일부터 7일까지 열렸다. 지구촌 출판인의 관심과 발길이 한곳에 모인 이번 제48차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전자출판의 거센 물결을 한껏 껴안은 책축제 한마당이였다. 예년과 달리 전시장 중앙에 전자미디어관을 배치, 그 관심도를 높인 것이나 도서전 조직위원장 페터 바이다스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2000년대 이전에 종이책과 전자 미디어의 북페어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세계 출판시장에서 뉴미디어가 더 이상 경쟁관계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 전자미디어, 당당한 핵심으로 부상

우선 이번 도서전은 외형적인 규모에서 성장을 보였다. 총 110개국 6819개사(95년 97개국 6497개사)가 31만 939종(95년 32만 7466종)을 출품했으며, 전시공간도 18만㎡(95년 13만㎡)로 늘어났다. 전체 매장은 크게 예술관(3관) 전자미디어관(4관) 독일어권 전시관(5,6관) 국제관(8,9관) 등 6개 전시관으로 구획했다.

세계 출판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은 역시 전자미디어관. 지난해보다 규모가 14% 확대된 전시관에는 27개국 500개사에서 출품한 새롭고 다양한 CD롬, 멀티미디어를 선보였다. 세계적인 전자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 IBM, 필립스, 일본의 소니, 후지사 등이 새로 개발하거나 기술이 향상된 프로그램, CD롬 타이틀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4.0관에는 50명 가량의 서적상과 출판인들이 전자출판 그룹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 전자미디어관답게 북페어의 전시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전자미디어 센터와 함께 인터넷 카페도 마련, 도서전 참가업체에 대한 정보까지 훑어볼 수 있게 했다.

전자미디어관 홍보지 《프랑크푸르트 북페세 온라인》에서 조직위원장 페터 바이다스가 “프랑크푸르트는 곧 멀티미디어”라며 “이제 멀티미디어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단순한 부속관이 아닌 당당한 핵심”임을 강조할 만큼 전자미디어의 비중은 대단했다.

전자미디어관 옆자리에 배치된 예술관(3관)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오히려 새로운 의

**지구촌 출판인의 관심과 발길이 한곳에 모인 이번 도서전은 전자출판의 거센 물결을 한껏 껴안은 책축제의 한마당이였다.**



도서전시관 입구. 한책을 비롯해 각종 물건을 파는 장이 열렸다.

미를 더해주었다. 이미 CD롬이나 인터넷으로 박물관의 예술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화보집이나 사진집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듯하다. 참가한 21개국 가운데 독일 출판사들이 대부분인데, 예술을 꽃피웠던 이탈리아도 20개사가 출품해 아름다운 북디자인과 정교한 인쇄술이 돋보이는 예술서적을 자랑했다.

5,6관은 독일어권 중심의 참가사들이 모여 있는 전시관. 특히 <Buch & Media>관(6.3관)에는 독일 출판서적상연합회, 대형 유통회사 등이 독일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책의 서지목록을 CD롬으로 제작,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또 독일책의 전세계 판매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출판·서적상 간의 합리적인 거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에서부터 즉석 명함인쇄기계, 전자출판매체를 전시하기 위한 서점용 서가와 기자재 등 온갖 새로운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선보였다.

### 테마국 아일랜드관은 다채로운 행사

한편 올해의 테마국인 아일랜드는 3,4관 앞의 광장에 조나단 스위프트의 대형 ‘걸리버’ 인형을 세워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회전식 돔으로 꾸민 독립국가관은 아일랜드 출판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의 적극적인 문화홍보가 눈길을 끌었다.

하는 다채로운 전시로 관람객이 붐볐다. 조나단 스위프트를 비롯해, 사무엘 베케트, 제임스 조이스, 지난해 노벨상을 받은 세이머스 히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아일랜드 작가들의 소개도 빠뜨리지 않았다. 2일부터 6일까지의 “아일랜드 디에스포라 축제”에는 40여명의 작가와 함께 독서마라톤과 토론 강연이 이어졌고, 아일랜드의 유명한 ‘기네스’ 흑맥주 등 토속음식으로 도서전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개막연설에서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은

“중이책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세계 각국 출판인들의 가장 열띤 분위기는 역시 국제관(8,9관)에서 느낄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뉴질랜드·아일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이 모여 있는 8관에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출판부, 돌링 킨더슬리, 미국의 맥밀란, 워너, 랜덤하우스 등 굵직한 출판사들이 자사 신간 출판물 상담에 열의를 보였다.

영국은 이번 도서전에서 가장 많은 863개사가 참여했고, 미국은 820개사가 참여해



##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본 진화의 메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코퍼니쿠스가 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평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 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어딘가에서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레이크 지음



**⑤ 원소의 왕국**  
화학 원소들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서의 산소는 여행이 될 것이다  
파터 앳킨스 지음



**⑥ 자연의 수학적 본성**  
아름다운 개념의 우주, 수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눈송이는 왜 모두 6각형인가?  
호랑이는 줄무늬, 표범은 점박이무늬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언 스테워드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 계속 발간 됩니다.



두산동아  
영업 (02)861-4818 / (02)853-5608

영어권시장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특히 8권에 마련된 '에이전트 스카우트 센터'에는 저작권 교섭을 타진하고 초고속 정보를 얻으려는 세계 각국 관계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국내에서는 임프리마 코리아, DRT, 에릭양 등 에이전트들이 참가 활약했다. 이들이 전하는 국내 출판계의 관심도 변화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차분해졌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첫째, 영미 중심의 입도선매식 편재현상이 수그러지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동유럽 남미 등 여러나라와 고루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둘째 소설보다는 어린이책, 사진책 화보집, 비즈니스, 역사 등 관심의 폭이 넓어진 점, 셋째 민음사 고려원 웅진출판 등 국내 단행본사들의 개별적인 정보교환 미팅이 활발해진 점 등으로 요약된다.

9.0권에는 영국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출판사가 참가한 프랑스(321개사)와 네덜란드(299개사) 등이, 9.1권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사우스노스 센터'에는 조직위촉이 초청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30개사가 모여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학동네'가 초청을 받아 개별 부스로 참가해 국내 관계자들의 발길을 끌었다. '사우스'와 '노스'의 문화격차와 갈등, 문학의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을 벌인 자리에서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등 유명작가와 역사 인문학자가 참석해 진지한 논쟁을 벌였다.

9.2권에는 국가관으로 운용된 우리나라의 출협 부스(2X12m)를 비롯, 웅진 금성 대한 인쇄 등이 단독 부스로 참가했다. 출협 부스에는 46개사의 350종 434책을 출품, 내년 서울국제도서전 참가유치를 포함한 200권의 상담을 진행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지역 여러나라들은 자국문화를 알리는 고유한 이미지의 색다른 디스플레이로 눈에 띄었다. 아시아 최대 부스 참가국인 일본(64개사)과 중국(44개사) 인도(38개사) 등은 국가관과 개별부스가 나란히 참가,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의 눈길을 잡았다. 특히 중국은 진시황 무덤을 영상으로 꾸민 단순한 판넬이 한눈에 중국문화의 장대함을 느끼게 했고,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도 모두 문화이벤트로 특성화해 돋보였다.

### 문화 홍보의 세심한 배려 아쉬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전세계 국제 저작권계약의 약 80%가 진행될 만큼 명실상부한 국제출판시장이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시장에 탄탄한 디딤돌을 마련하기엔 아직 갈길이 먼 듯하다.

우선 국제도서전에 임하는 출판인들의 자세 문제다. 여행사의 스케줄에 맞춰 도서전은 곁핍기이고 관광이 우선이어서는 곤란하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도서전과 다를 바 없지만 물밑에선 이미 나와 있는 최신간, 앞으로 나올 책, 출판사의 주력도서 등 온갖 정보들이 전시관 전체에 흐르고 있다. 미리 자신의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훑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언어의 벽이 높다면 책 디자인이나 편집체제의 선진적인 감각을 받아들일 기회다. 원하는 정보를 캐내는 능력이야말로 그 출판사의 역량이다.

둘째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건본시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성들이 모인 문화잔치라는 점이다. 자국의 지적 문화수준을 세계에 알릴 일년에 한번뿐인 기회를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테마를 활성화하고, 출판이벤트를 문화이벤트로까지 연결시키는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국가관과 개별 부스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최소한 한국이 최초로 활자를 만든 나라라는 것, 우리의 베스트셀러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자료만이라도 마련한다면 한국의 부스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동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이제 꿈꿀 만하다는 사실이다. 일방적인 영미출판물 번역수입에서 벗어나 소규모 언어의 번역에도 서로 관심을 가질 때다. 실제 저작권 상담에서 그런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도 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저작권 계약 건수가 많은 우리나라가 이제까지의 국제 감각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통해 바라 고 싶다. — 김지원 기자